

상무지구 유흥업소 '탈세 천국' 카드깡 업자와 싸고 36억 포탈

31곳 200억대 술값 유흥업소 매출로 속여

‘유흥업소’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광주지역 최대 유흥가인 상무지구 대형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신해준 뒤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기업형 ‘카드깡’ 업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송삼현)는 28일 유흥업소 대신 신용카드 결제를 해준 뒤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게 하고 수수료를 챙긴 조모(44)·임모(48)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주점 사업자 등록

과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뒤 2004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상무지구 등 광주지역 대형 유흥업소 31곳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빌려주고 총 2만여 차례에 걸쳐 205억원 가량의 술값을 자신들의 유흥업소에서 판매한 것으로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유흥업소 업자들은 36억원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조씨 등은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수수료로 16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유흥업소들은 30%가 넘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 데

신 카드 결제액의 13%를 조씨 등에 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조씨 등은 4.5%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8.5%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등은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고용한 뒤 매출 200만~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세무당국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6개월에 한 번씩 ‘바지사장’을 바꿔왔다.

검찰은 업소별 탈세액을 조사해 업주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이처럼 ‘카드깡’을 해온 유흥업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업소별 탈세액을 조사해 업주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이처럼 ‘카드깡’을 해온 유흥업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업소별 탈세액을 조사해 업주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이처럼 ‘카드깡’을 해온 유흥업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유흥업소들은 30%가 넘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 데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글 배우는 이주여성들

성들의 눈길이 진지하다.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한글학교’가 28일 오전 광주시 북구 건국동사무소에서 문을 열었다. 교사의 지도에 따라 한글을 배우는 이주 여성들의 눈길이 진지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바지사장 6개월마다 바꾸며 범망 피해

■ 진화하는 카드깡 수법

검찰에 구속된 주범 조씨 등은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통상 세무조사 없이 결혼처분을 하는 세무행정의 허점을 이용했다.

세무당국은 그동안 조씨 등이 6개월여 만에 한 번씩 바꾼 ‘바지사장’ 명의로 된 유흥업소에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지만, 모두 ‘바지사장’의 체납액으로 쌓였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운 ‘바지사장’은 사실상 무일푼. 조씨 등은 부동산 또는 금융재산이 없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같은 범행을 2년이 넘도록 저지를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은 ‘바지사장’의 유흥업소 세무서에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약 6개월 정도만 카드깡을 한 뒤 다시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업소도 바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세무당국은 ‘바지사장’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한푼도 받지 못했다.

검찰은 또 조씨 등을 통해 업소 매출의 대부분을 ‘카드깡’해온 유명 유흥업소들도 대부분 조세포탈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실제 업주 명의로 하지

신중 카드깡 범죄 계통도

- 주범 (조모·임모씨) 카드 매출액 8.5%씩 16억원 챙겨
- 바지사장 - 주범으로부터 월급 200만원~300만원
- 유흥업소 업주 매출액 30~40%씩 총 36억원 세금 포탈

않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로라하는 유흥업소 대부분 걸렸다

■ 적발된 업소 살펴보니

광주지역 최대 유흥가인 상무지구 유명 유흥업소들이 ‘카드깡’ 업자를 통해 수 년 동안 탈세를 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유흥업소 31곳은 상무지구의 L·B·S·A 업소 등 상무지구에서도 내로라하는 유명 업소들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 업소는 평일의 경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그동안 일부 유흥업소들은 특별소비세(13%)·부가세(10%)·카드 수수료(4.5%) 등 30%가 넘는 많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의 술값 카드 결제를 의류업체·식당 등 비교적 세금이 낮은 곳에서 대신 결제하는 방법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 이들 유흥업소들은 ‘유흥업소’를 차려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업자에게 카드결제 단말기를 빌려주어 업소에 두고 손님들의 술값을 카

드 결제해 왔다.

이들 업소는 적게는 800회, 많게는 3천500건까지 ‘카드깡’을 했으며, 이를 통해 업소당 8천만원에서 1억7천여만원의 탈세를 해왔다. 일부 업소는 사업자가 바뀌어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탈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높은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유흥주점 업자와 명의를 빌려주는 ‘카드깡’ 업자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 등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손쉽게 ‘카드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 앞두고 자살 몽골 여성 유족들 광주서 오열

“불쌍한 내 딸, 한국에 건너가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될 줄이야...”

28일 오후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계,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A(29)씨가 투신자살했다는 비보(悲報)를 듣고 한국에 온 몽골인 어머니 D(64)씨와 오빠(42)가 시신 인계를 위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미안하다. 저 세상에서 잘 살아라”라는 말을 연신 되뇌고 있었다.

D씨 등은 지난 24일 몽골에서 딸의 비보를 받았다. 하지만 딸의 사망 소식은 좀처럼 믿기지 않았

다. 평소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지닌 대안 딸이었기 때문이다. 먼 이국 땅을 한달음에 달려온 D씨 등은 광주 모 병원에 안치된 딸의 싸늘한 시신을 보고서야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D씨는 경찰에서 “희망을 안고 한국행을 선택했는데, 제 꿈도 이루지 못하고...”라며 말문을 잊지 못했다. A씨는 몽골에서 체육대학 농구지도자학과를 졸업한 뒤 의류업에 종사하던 중 한국인 남편 B모(37)씨를 만났다. 이후 지난 1월 19일 결혼비자를 받아 광주에 온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단

란한 가정을 꾸려 나갔다.

하지만 몽골에서 밝은 것과는 달리 한국생활은 너무 낯설었다. 특히 내달 3일 정식 결혼을 앞두고 비자발급일이 늦어지면서 몽골에 사는 가족 초청이 무산되자 A씨의 상심은 컸다.

A씨의 오빠는 “숨지기 이틀 전 여동생과 통화를 했다. 가족들이 결혼식에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슬퍼했다”며 “한국에서 장례를 치른 뒤 이곳에 여동생을 안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다방 여종업원 성폭행·강도 잇따라

최근 다방 여종업원들이 잇따라 강도·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등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28일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최모(25)씨에 대해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새벽 1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 한 호텔에서 L다방 종업원 정모(여·22)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성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

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북부경찰은 지난달 27일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20만원을 빼앗고 강제추행한 임모(35)씨에 대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달 6일에도 다방 여종업원을 모델로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낸 황모(36)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방 여종업원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도 선불금 문제 등으로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등굣길 승용차, 행인 치고

다리 아래 추락 4명 사상

28일 오전 8시께 담양군 담양읍 장산리 장산교에서 서모(여·37)씨가 운전하던 투싼 승용차가 오모(여·68)씨를 친 뒤 5m 높이의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서씨와 오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서씨의 딸 강모(14)양 등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날 집에서 10여분 가량 떨어져 있는 담양읍으로 등교하는 자녀를 데려다 주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필수기자 bungy@

나원침 (7493) 김종두



다 중의 건축·산업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저렴 및 상담 환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광원 : 061) 337-0571

학교 안가려다- 납치 오인 소동

○가출 초등학교 생들이 학부모를 가짜 학교에 결석을 통보한 것이 납치사건으로 오인돼 경찰관 수백명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28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순천시 모 초등학교 5학년 김모(12)양과 이모(12)양은 지난 27일 가출을 결심하고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 담임교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배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가겠다”고 말했다는 것.

○“어리숙한 학부모”의 전화를 받은 교사는 김양의 가족에게 이를 확인했고, 어머니는 딸이 납치됐다고 판단, 곧바로 경찰에 신고.

○신고를 접한 경찰은 김양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 결국 ‘잘못된 초·중학생’을 광주로 가던 버스 속에서 찾아 가족들에게 무사히 인계.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주) 조이트레블

대표전화 (062) 234-3222

팩스 (062) 234-3111

기쁜소식 조이트레블 특가!!

현재가 10월 20일 ~ 10월 25일

300,000

1. 이태리 입주 8월 1,490,000

2. 서유림 5개곡 11월 2,690,000

1. 대안 / 야류 / 화면 4월 6,190,000

2. 대안 / 야류 / 화면 4월 6,340,000

399,000

399,000

399,000

629,000

429,000

399,000